

# 開 會 辭



존경하는 산업자원부 이원걸 차관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 전 법무부장관 김종구 고문님, 전 국방부장관 조성태 의원님, 박상돈 의원님, 노영민 의원님, 양승조 의원님, 한국전기안전공사 송인회 사장님! 그리고 전기계의 내외귀빈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 정기총회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존경하는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

오늘 총회는 지난 한 해의 사업을 결산·평가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협회의 운영지표를 '회원이 주인인 협회', '사랑과 봉사의 협회', '깨끗하고 힘 있는 협회'로 정하고 임·직원과 더불어 회원의 권익향상, 그리고 협회 및 전기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협회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부처와 전기관련단체에서도 우리 협회를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우리 협회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전기인의 날” 제정과 “전력기술진흥대회”의 개최입니다.

2004년 11월 1일 산업자원부 이희범 前장관께서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선포해 주셨고,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3,500여명의 회원이 모이신 가운데 '제2회 전력기술진흥대회'와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 협회는 처음으로 훈장, 포장 및 대통령 표창 등 국가가 주는 큰 상을 수여하는 독자적인 행사를 갖게 됨에 따라 우리 전기인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 둘째, 우리 회원님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협회회관”의 마련입니다.

저는 3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회관건립은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룬다'는 신념으로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투명 경영을 목표로 재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난 3년 동안 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었고, 그중 15억원을 회관건립기금으로

적립함과 동시에 회원님들께서 정성으로 기부해주신 성금 등을 모아 지난해 9월, 서울 사당역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2층 지상6층의 건물을 협회회관으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협회는 지난 42년간의 셋방살이를 벗어나 금년 8월에 새 건물로 입주하여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회원들의 구심체 역할은 물론 회원에게 더욱 봉사하는 협회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 셋째, '국제 전력전자 및 전기설비전'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회장에 취임해보니 전시회 개최를 1개월 앞두고도 홍보와 준비부족 등으로 국제 전시회의 면모를 갖추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저는 현업에서 수차 각종 국제전시회에 참여한 경험을 되살려 이를 극복하고, 2003년 4월 제회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지난해에는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13,000여명이 참관하는 등 국제적인 전시회의 면모를 갖추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 넷째, '전력기술지원센터'의 설치·운영입니다.

수많은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원활히 해결해 드리기 위해 2004년 5월 『전력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술사, 교수 등 50여명의 전문가 그룹이 전기수요관리, 전기사고 등 각종 기술적 문제에 대해 무료 기술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다섯째, 협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중 큰 행사는 '전력기술진흥대회 및 전기인의 날'과 '국제 전력전자 및 전기설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사 때마다 KBS와 MBC-TV 뉴스 시간에 방영하게 하는 등 언론보도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협회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로써 회원 가입이 증가되고 힘 있는 협회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여섯째, 회원의 권익보호와 전기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입니다.

민간 대행업체도의 폐지나 전기안전관리 상주근무제도 폐지 등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협회에서 적극 대응하여 현행준치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전력기술관리법령 등의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여 감리용역의 덤핑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설계·감리대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전의 배전감리 용역을 외주 발주토록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연간 150억원 수준의 감리용역이 외주 발주됨에 따라 감리용역 시장을 키우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 【 2006년도(제10차) 중앙회 정기총회 】

###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지난 1월부터 전국 21개 지회의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각 지회의 총회에 참석하면서 지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수가 과거보다 크게 증가된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만큼 우리 협회의 기반과 위상이 높아졌고, '회원이 주인인 협회'로 변화되고 있는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많은 회원의 참여 속에 큰 행사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회원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지난해에는 무려 8,200여명의 신규회원이 가입했고, 그에 따라 회비수입도 크게 증가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내실을 다지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협회가 발전한 데에는 협회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많은 회원이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 회원들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기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소임을 다해 오신 결과로 생각하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회원과 전기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법·제도적인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오늘날 모든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서 전기의 중요성은 말 그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기본자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님과 현장에서 설계·감리·안전관리와 그 밖에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전기인은 그만큼 소중하고 값진 국가적인 자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기인들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아울러 협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오늘 영예의 수상을 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공시간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만복이 깃들고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28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이희평

# 致 辭



존경하는 김용갑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광성문의원님, 노영민의원님, 박상돈의원님, 양승조의원님, 조성태의원님, 송인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님! 그리고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이희평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8만여 협회 회원 및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제10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국가의 핵심 에너지원인 전기공급설비를 차질없이 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해 오신 전력기술인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전력기술 진흥에 크게 공헌하여 포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발전시설 용량 6,200만kW에 달하여 세계 10위의 전력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품질은 2005년말 기준으로 호당 정전시간은 연간 19분, 전력 송배전손실을 4.5%, 주파수 유지율 99.7% 등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계 수준의 전력기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전력기술인 여러분!

지난날 우리 전력산업은 선진국을 Catch-up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면, 선진국과 동등한 기술력을 갖추게 된 지금 우리의 목표는 세계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초일류'로 거듭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력산업의 미래는 산업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울이는 혁신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사회 시스템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전력기술인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유가 상황의 지속은 에너지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에너지 수요관리의 강화, 고효율기기 보급 등 전기·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을 위한 정책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력기술인 여러분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더욱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 하계 피크시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 기술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수요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력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로 직결되므로, 전력기술인 여러분께서는 안전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전력시설물의 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력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R&D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제도상의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력·전기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투자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혁신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IT기술, 나노기술 등을 전력산업분야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이른바 「전력IT」사업이 산·학·연의 합심 노력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력기술인 여러분들은 이러한 전력 IT기술을 설계·감리 및 안전관리 현장에서 응용하고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전력시설물의 원격감시시스템, 디지털 기반의 변전소 설치·운영 등 전력 IT분야의 기술개발과 보급을 통해 전력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내수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전력산업의 성장동력을 해외시장에서 찾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한전을 비롯한 역량있는 대기업들은 중국·동남아·중동·아프리카 등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설계·감리·안전관리 업계도 해외시장에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제10차 정기총회를 통해 협회와 전력기술인 모두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28일  
산업자원부 차관 이원걸

# 激 勵 辭



친애하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정기총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협회 대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80여만명의 전기인을 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제10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대 국가에 있어서 전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세계 제2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다 전기의 힘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고품질의 전기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전기안전을 위해 전력산업의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전기인 여러분의 임무는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그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전력기술인협회에서는 감전사고,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전기안전확보를 위해 전기설계, 감리, 안전관리 등 각 분야에서 안전한 사회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전기인 여러분!

오늘 총회는 앞으로 3년간 협회를 이끌어 가실 회장과 임원선출이 있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들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협회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정말 유능한 분을 회장으로 선출하시고 당선된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과 협동하여 전기인의 복리증진과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전력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공로로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은 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협회 회관으로 입주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뜻 깊은 해인만큼 회관 입주를 계기로 한국전력기술인 협회가 새 도약을 하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28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김 용 갑